서문

인용한 문서는 작성자, 그리고 중재를 담당하던 총괄진과의 사전 합의 없이 조율이 진행된 지 불과 한 시간만에 일방적인 통보 연락을 남기신 후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합니다.

본문

작성자 측에서는 에델 님께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협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율 도중 급작스럽게 해당 트윗이 게시되어 이에 대해 여쭤보자 '스스로가 지금이 조율 중인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아 게시하였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율 초반 전달드렸던 해명문에서는 캐릭터 디자인과 설정을 수정하는 쪽으로 선처를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의견이 어긋나자, 에델님께서 제시하셨던 후속 조치 방안인 캐릭터 삭제 및 제명, 그리고 후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습니다.

이전부터 의견이 맞지 않을 시 문서를 게시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긴 하셨으나, 저 또한 협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에는 먼저 제시해주셨던 방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만큼 갑작스레 게시된 공개 트윗에 관해서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재를 도와주시던 총괄진 분들조차 조율 도중 합의 없이 급작스럽게 게시되어 난처하셨다고 말씀해주신 바 있습니다.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대화 내역 역시 저와 관리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앞뒤 내용을 제외한 채 게시되었으며, 하단의 내용은 뒤로 이어진 대화 발췌입니다.

전 이번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일을 간단히 끝낼 수 있을까요?

오후 10:37

↳ 댓글 1

일단 계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redacted] 계정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10:38

일단은 지인 데리고 오겠습니다.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후 10:42

혹시 회신이 어려우실까요.....?

오후 10:48



에델

햄에게 댓글
전 이번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뇨, 지인 초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을 키우기 싶지 않다고 차라리 고의성을 인정하면 빨리 끝나냐고 저에게 물으셔도... 어차피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자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덮기 위해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ㅠㅠ

오후 10:49

↳ 댓글 1

아닙니다. 제 지병으로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은연중에 에델님의 캐릭터를 파쿠리 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인들에게 여러 검토를 받은 것도 제 지병을 고려하여 항상 하는 연례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제가 충분히 파쿠리라고 한다면 파쿠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됨

오후 10:52

또한 문서에 포함한 외관은 전부 지인에게서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검토의 일부 과정 중 하나였고요.

먼저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호토게 이노리’ 캐릭터를 고의적으로 베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타임라인에서 합발폼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 캐릭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셨듯 외관이 아닌 설정까지 복제한 사실이 성립되려면 제가 ‘호토게 이노리’ 의 신청서 또는 공개 프로필을 봤거나, 에델 님의 연공계를 찾아 사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델 님을 이번 일로 처음 뵙게 되었으며, 해당 캐릭터의 오너 분이시라는 사실도 어제 자로 처음 알았습니다.

‘미트 파라다이스’ 커뮤니티를 러닝한 것도, 겹트친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는 에델 님의 캐릭터 문서와 연공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찰을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보았거나,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니 외관 쪽에서는 본 기억이 있었던 만큼 고의성을 인정하고 설정에 관련해서는 우연이라 이해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으나, 에델 님은 제가 연공계를 사찰해 신청서와 공개 프로필을 읽은 것을 전제로 ‘외관과 설정 전반에 있어 고의성 파쿠리를 인정해라, 하지만 허위 인정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결론

최종적으로는 제명 조치와 캐릭터 삭제까지 받아들였음에도, 문서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설정과 관련하여 외관 자료와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지인들의 증언까지 제공해 드렸음에도 납득하시지 못 하겠다고 하시어 추가적인 해명문 또한 작성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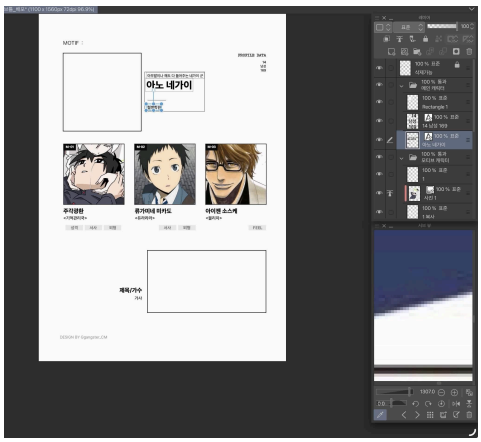
캐릭터 디자인과 설정 관련 자료 및 해명문은 다음 탭으로 이어집니다.

보다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음슴체로 작성되었으며, 전에 작성된 해명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볼드체가 되어있는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무관합니다.

디자인 관련

- 모티브가 **초텐짱(사이비 루트)과 아메** / **아메리칸 사이코** 였던지라 **그 컬파를 가능하면 최종 디자인에도 가져가고 싶었음. 그 과정에서 보라 / 분홍 / 민트(청록) / 하양 / 검정 / 빨강 등의 컬러**를 가져감. 또한 이 **색깔 배치는 지인에게 제안 및 피드백**받은 바 있음.
- 사이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캐릭터라 **승려복, 법복, 예수, 부처, 신토 복장(음양사, 동방 프로젝트) 등을 다소 많이 참고**했음.

0차 기간은 크게 이동진을 보고 디자인함(내지는 아이젠 소스케). 붉은 안경 캐릭터, 은은 오타쿠 평범 남자 캐릭터를 내고 싶었어서 외관 모티브로 이동진, 하단의 캐릭터들로 디자인을 구상함.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현재 디자인. **동공 하나를 감싼 형태(하단 서술 참고)와 붕대도 하단의 캐릭터를 참고하여 차용했던 소재**. 처음에는 눈에 붕대를 감을 생각이었으나, 너무 과하다는 **지인의 평가와 성후 마약 중독 설정을 고려하여 주사자국을 가리기 위해 손에 붕대를 감는 쪽으로 수정. 성전에도 붕대를 감은 이유는 성후 때 외관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공유하는 디자인의 요소가 적어보여, 동일 캐릭터처럼 보이기 위해 0차 기간에도 이를 유지하고자 추가**함. 더 나아가 이 캐릭터 디자인 요소는 일본고교, 전파계 또는 사이비 캐릭터에게 자주 보이는 클리셰 내지는 도식이라고도 생각함. 그렇기에 이 디자인 요소를 의식적으로 차용했으며, **나나곰 바게트를 사용하면서 단순하게 표현되었을 뿐 동공 하나를 감싼 형태가 아니라 윤회안을 가정했던 디자인.**


MOTIF
아노 네가이
주각성판
<각각의이미>
원가이네 피카도
<원가이미>
아이언 소스케
<원가이미>
제목/가수
가사
DESIGN BY Egangmar.CM





1차 기간은 0차 기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하단으로 디자인했었으며, 초텐쨩 쪽에 좀 더 주목함. **윤회안 요소 또한 0차 기간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여 넣었던 디자인임. 종이식신은 음양사 캐릭터 자료를 참고하며 추가.**



그러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번 디자인을 엎고, **지인들에게 조언받는 과정을 거침**. 실제로 하단에 첨부된 자료는 전부 지인들에게 얻었던 자료.



추가적으로 신토 복장의 느낌을 내고, 신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흰색을 더 크게 차용하고자 함 (지인도 이를 추천해줬고, 초텐짱의 컬파도 흰색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라 이를 가져가고 싶었음). 하단은 그 당시에 느낌을 살려보고자 참고했던 자료들.



그 결과 나온 최종 디자인이 현재의 디자인. **종이식신은 수정 과정중 제외됨.**



설정 관련

- 여기 모티브도 초텐짱과 아메임(여기서는 두가지 신분, 이면성에 주목함)은 동일하나, 이에 관련해서는 기억관리국의 '주각광환' 과 듀라라라!!의 '류가미네 미카도', 데스노트의 '야가미 라이토' 정도를 추가적으로 모티브 삼음. (추가적으로는 이 당시에 소라닌이라는 작품을 인상 깊게 봤던지라,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음.)
- 해당 곡을 크게 참고함. ABM - 인기중독 / 이코 - 추정 러브송 < 이 곡에서 나오는 캐릭터도 **분홍 / 보라 / 파랑 / 민트(청록) / 검정 / 빨강 등의 컬러가 주된 컬러로 등장하며, 세뇌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노래.** 그 외에 이전 해명문에 작성했던 노래 또한 비슷한 분위기. **겹친 두 곡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노래로, 작성자 또한 그 노래를 투고 시점때부터 좋다고 언급**해왔음. (일상과 지구의 액자 같은 경우는 이번년도 초에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즐겨들었던 것으로 기억.)
- 이름에 관련해서는 **아노네(あのね) 라는 말장난과 저기 군(あのくん)같은 가벼운 농담을 활용한 이름을 짓다, ね로 시작하며 '소원' 이라는 뜻의 네가이(願い)를 차용**했음. 심지어는 공개 프로필의 문서 이름조차 '아노네아노네' 로 되어있을 정도고, 러닝중에서도 아노네 군이라고 불림.
- **베스트 프렌드 부분은 작성자가 작성**한 것이 맞으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친구가 많은 설정의 캐릭터에게 흔하게 사용되는 워딩** 중 하나. 처음에는 절친(友人)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었음. 그러나 일본의 언어환경 특성상 절친보다는 베스트 프렌드 쪽이 더 맞는 표현이라 생각해 수정.
- 생일 관련해서는 운명적으로 불교와 어울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절의 사람들은 전부 살해하는 캐릭터이므로 **불교와 가장 거리가 먼 날짜를 택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사이비와 기독교를 차용하면서, 성탄절이 끝난 날 이후로 생일**을 정하게 됨.

아노 네가이라는 캐릭터는 태생적인 인간성에 주목한 캐릭터임. 본래 비인간적인 성격을 타고났을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은사에게 감화되어 **반성하고자 스스로의 인간성을 외면하고 최악의 악인을 자처하는 캐릭터**에 가까움.

성격 또한 초텐짱과 아메 / 아메리칸 사이코 / 류가미네 미카도 / 주각광환 / 아이젠 소스케 / 야가미 라이토 등의 **모티브 전원이 평범함을 연기하는 비정상인, 인기인이라는 소재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본 캐릭터에도 이를 참고**했음. (하라구로 속성, 레트로 홀릭, 전파계, 두 가지 신분, 이면성, 신념주의, 평범한 학생 또는 사람이라는 외관과 성격 서술, 속내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거나 또 다른 신분이 있는 등의 여러 설정.) **예수와 종교 관련 언급또한 비공개 설정란에 서술해둔 바** 있음.

아스키 아트와 개인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0차 기간에는 투채널, 니코동 등에서 활동하고 즐겼다는 것이 먼저 서술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일이 커지자 개인 홈페이지로 옮겼다는 서술이 존재함. 심지어는 **이 설정 조차 지인에게 추천받은 설정**이며 **아스키 아트는 활동명으로만 사용**했을 뿐, 러닝 중에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음. 심지어는 상단에 서술된 요소를 신경 쓴 캐릭터인 만큼 쓸 일 조차 없었음.

부모에게 관심받고자 사람을 죽였고, 그들에게 버려진 결핍으로 인터넷 세상을 택했음. 그 과정에서 본인의 혈능력(언령)을 인지함. **그럼에도 부모를 찾고자**, 동시에 관심을 받고자 **가벼운 사기행각을 동반한 인터넷 생활을 지속**하다가 **외면하던 본인의 혈능력(언령)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이 되어버린 캐릭터**에 가까움. 일종의 스불재를 받는 캐릭터.

그 과정에서 **승려였던 은사와 다투게 되며 살인**을 저지르고, **텍관 조율을 통해 방화**를 저지름.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자처, **철저한 불교 신자로서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각종 범죄에 손대는 캐릭터**임. 이 **설정 또한 지인에게 추천받은 바 있고, 보디패킹 또한 모티브였던 니디걸오버도즈의 사이비 엔딩이 마약을 과다 섭취해야 나오는 엔딩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넣게된 설정**임. 처음에는 마약 유통과 판매라는 워딩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찾던 도중 보디패커라는 단어를 발견하였고 서술을 간단히 하기 위해 보디패킹이라는 단어를 채택함.

외관에 들고 있는 석장과 도끼는 실제로 은사였던 승려를 죽였을 당시에 절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해당 캐릭터에게는 죄업을 잊지 않기 위한 물건임. 서사적으로도 내심 인간성을 바라고 있던 캐릭터라, 속으로는 살생 > 악행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석장을 내리치는 행동으로 러닝 중 표현해주고 싶었음(하단 참고). 도끼는 정말 순전히 아메리칸 사이코의 도끼가 좋아서 도끼를 채택. 실제로도 아메리칸 사이코를 상당히 좋아하여, 도끼를 들고 있거나 정장+우비를 입은 캐릭터를 자주 디자인하고는 했음.

> 석장은 짚을 때마다 고리들이 흔들려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땅을 두들겨 소리를 내어 길에 있을지 모르는 산 생명들에게 경고하여 살생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수행자들이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석장을 사용했다. 특히 위험한 육식동물에게도 이 소리는 일정한 경계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달그락거리는 쇠붙이 소리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게 하여 동물이 이를 먼저 감지하고 멀리하기도 한다.[4]
>
> 또한 석장의 소리는 비교적 멀리까지 울리기 때문에, 수행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활용해 탁발을 다닐 때도 석장을 흔들어 자신의 접근을 알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빌딩, 외관을 그리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 지인들과 디스코드, 짓시, 통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고 **설정 또한 관리진 포함 지인 여럿에게 검토받았음**. 이 과정에서 **유사점에 관련하여 어느 지적도 받지 못했었으며, 이 때문에 유사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 했음**. 이 점은 작성자의 불찰이 맞으나,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함.

최종 입장문은 두번째 탭으로 이어짐.

에델 님

안녕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햄 님의 입장이 '타 커뮤 캐릭터를 참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파쿠리로 여겨질 만한 유사성은 인정하나', '마주한 적이 있으니 고의성을 인정하겠습니다.'라면 저 역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각한 상태에서 타 캐릭터를 참고했음을 뜻하나, 햄 님의 주장은 '참고한 기억도, 의도도 없다'는 데서 일관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고의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박에 의한 허위 인정은 바라지 않으므로, 햄 님의 최종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제 입장 또한 달라진 바 없기에 게시글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고의성 인정이 성립할 수 없는 이상 부득이한 일입니다. 제게 주신 자료를 문서로 게시하여 '외관상 유사성만 인정하며 설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설정이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것 역시 햄 님의 자유입니다. 캐릭터 제명 및 삭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세요. 더 나눌 이야기는 없는 듯하여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햄 (작성자)

두 캐릭터가 유사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이나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파쿠리로 의심될 만큼 여럿이 겹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캐릭터는 일본고교, 사이비라는 설정을 공유합니다. 이 외에도 전파계, 하라구로, 신토 내지는 여러 복합 신앙 같은 소재가 겹칩니다만 이 속성들은 일본고교와 사이비 설정에 클리셰 내지는 도식으로 따라오는 설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캐릭터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게 저런 요소를 의식해서 차용하였고, 자료에서 보셨듯이 지인들 또한 추천해준 바(아스키 아트, 범죄, 살인 등의 설정)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러닝 이프 서술 부분에서도 폐급 내지는 쓰레기 정도의 캐릭터를 하고 싶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정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델 님께서는 제가 해당 캐릭터의 신청서 또는 프로필을 읽었거나, 연공계를 사찰한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처럼, 제가 공계에 올라온 정보를 무단으로 참고했다는 것 역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게시 정황과 시기를 포함해 이 사안은 서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위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 입장 또한 난처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주제이니만큼 이번 일이 더욱더 커지거나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원하시는 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고, 문서를 내려달라고 요청드린 것인데 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끌어갈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명과 캐릭터 삭제는 진행하겠으나, 제 메인트에는 사과문 대신 입장문을 걸어두고자 합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또한 에델 님에 대한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번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